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신희*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사우스 밴쿠버에 위치하며 교통편이 좋습니다. (스카이트레인 역이 주변에 있어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수업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수업은 같이 간 한국 학생 15명에서 같이 듣고, 선생님은 한 분 계십니다. 수업 내용은 캐나다의 역사, 문화, 지리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숙제도 종종 있는데, 주로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Activity	<p>1. museum of Vancouver 수업과 연계해서 팀을 나누어 밴쿠버의 1900년대 역사를 나누어 조사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팀별로 발표해 공유했습니다.</p> <p>2. Curling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활동이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스포츠를 접할 수 있어 신기했습니다. 컬링장 내부가 상당히 쌀쌀하므로 따뜻하게 입으면 좋지만 컬링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장갑도 준비하면 좋습니다.</p> <p>3. Vancouver Aquarium 스탠리파크 안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입니다. 가오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3시에 활동을 마치고 스탠리파크에서 놀 수 있습니다.</p> <p>4. Snow shoeing 눈에 빠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등산하는 활동입니다. 활동자체는 그냥 등산과 비슷하지만 산에 올라 넓은 풍경을 본 것이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춥지만 걷다보면 적응해서 괜찮습니다. 신발과 양말이 젖을 수 있어서 여분의 양말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에 춥다고는 하지만 해안지방이라서 그런지 한국보다 많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눈이 올 때는 많이 추웠고, 비가 매우 자주 내려서 우산은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안전	21일 동안 안전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지만, 주의를 항상 살피볼 것을 주변에서 권합니다.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V) 외부 숙소() 기타() 제가 사용한 홈스테이 숙소는 홈스테이 가족과 층이 나누어져 있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홈스테이 메이트도 있었는데 동성의 친구들이라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원래 메이트는 동성만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V)기타() 아침은 냉장고에서 식빵과 잼으로 알아서 챙겨먹고, 점심은 그 전날 남은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서 학교에서 먹었습니다. 저녁도 홈스테이 가족들이 챙겨주지만 주로 외부 식당을 갔습니다. 여러 인종들이 있는 만큼 여러 홈스테이 가족들의 음식이 존재해서 친구들끼리 나눠먹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교통	캐나다의 교통 자체는 한국보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Street마다 버스가 일자로 다녀서 시내까지 먼 거리이지만 버스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카이트레인(전철)은 보통 3~6분마다 있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식비 관광비(입장료 등)	760 \$	보통 식비로 많이 나갑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준비사항으로는 학교에서 주는 체크리스트의 것들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110V를 사용하므로 돼지코도 준비해야하고, 여권 사본, 각종 서류들(홈스테이 정보, 학교입학서, 항공 E티켓 등), 현금, usim 또는 로밍.
(로밍보다 usim을 사는 것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음식이 입에 안맞을 수 있으므로 라면, 햇반 등을 챙겨가도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경험들을 했고 21일 내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만에 영어실력 향상을 바라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외국인이 말을 걸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칠 수 있는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단기 어학연수를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자신 있게 적극 추천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며,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밴쿠버 시내 야경(Gas town)



Grouse Mt에서 본 야경



야외 활동(Curling)



Hobour Centre에서 본 야경



빅토리아의
BC Legislature Building(주의사당)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인 햄버거